

# 扶餘 井洞里出土의 墓用磚

姜 仁 求

1

扶餘地方에서 發見되는 百濟時代의 磚은 二・三種이 알려져 있는데 其一은 一九三七年 三月에 窺岩에서 發見①된 八種의 文樣이 있는 것으로서 寺刹建物の 基壇部等に 使用된 것으로 推測되고 있다. 其二는 一九三五年 秋에 軍守里寺址 發掘調査時 發見된 箱形中空磚②이다. 이것 亦是 寺刹建物에 使用된 것이 確實하나 中國六朝時代의 磚墓中에 이와 治似한 것이 있어서 寺刹建物外에 墓에도 使用되지 않았을까 推測③된다. 이들 外에도 小形의 方形文樣磚과 長方形의 無文磚들이 寺址에서 發見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寺址에서 發見된 것들 뿐이고 墓에서 發見되어 紹介된 것은 하나도 없다. 今番 이곳에 紹介하는 것은 墓用磚으로써 公州의 宋山里磚築墳들에 使用된 磚들과 形態와 文樣에 있어서 거의 同一하다. 이러한 磚이 少數이기는 하나 扶餘에서 出土 되었다는 것은 매우 重要な 事實로서 百濟時代에 있어서 公州時代에만 또 公州地方에만 局限 使用된 磚築墳의 墓制가 扶餘時代에 넘어 와서도 한동안 使用되었을 것이라는 可能性을 우리에게 보여 주며 앞으로 이러한 遺蹟이 發見될 可能性을 示唆한다는 點에서 이들 磚이 갖는 價値와 比重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되어 이곳에 그 全貌를 밝혀 두고자 한다.



圖 1: 磚出土地附近圖

(1) 塹들이 發見된 곳은 扶餘邑 井洞里山九番地(圖1)로서 俗稱「가능골」이라 불리워지는 곳이다. 이곳은 主藏山(圖2參照)(海拔一二二m)의 東支脈·西南麓에 位置하며 扶餘邑으로 부터 東北間向으로 三·四km의 距離이고 陵山里 傳王陵群으로 부터는 北後方 三·五km쯤 된다. 이곳의 西쪽으로 二km 距離에 瓦峰이란 小丘陵이 있고 그 뒤에 百馬江이 南流하며 東便에 扶餘 公州間 國道가 通過하고 있다.

(2) 塹들은 一九七〇年 五月二〇日頃 井洞里에 居住하는 李永基(農業 五〇餘歲)에 依하여 發見, 扶餘博物館에 申告되었는데 李氏가 甕을 盜掘 爲하여 발을 가는데 地表下 三〇cm에서 發見되었다 한다. 이 발은 山의 傾斜面을 開墾한 一〇餘間 程度의 좁은 밭이다. 住民들의 말에 依하면 이 「가능골」에는 古墳이 十數基가 남아 있었으나 日帝時 모두 盜掘 되었다 하며 只今은 그 形蹟도 없으며 土器片만이 약간 散見될 뿐이다. 今番 發見된 塹들은 이들 없어진 古墳들의 殘餘物인 것으로 생각되며 塹外에 이곳 出土品은 一點도 博物館에 收藏되어 있지 않다.

## 3

(1) 塹의 出土 狀況⑤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出土地點은 前述한 바와 같이 開墾한 작은 밭인데 그 곳은 밧밧한 傾斜面을 가로 질러서 長四·五m 幅은 南쪽이 좀 넓게 展開되어 언덕의 傾斜와 만나게 되나 北쪽은 一m의 幅으로 좁아 든다. 西쪽은 언덕이고 東쪽은 깎여나가 남아 있는 部分이 마치 三角形의 形局을 이루었고 發見者 李氏의 말에 依하면 數年來 밭으로 耕作되어 오고 있다. 出土地點을 中心으로 이 밭의 表土(腐土)를 除去한 結果 한 개의 Pi가 이루어 졌는데 西邊의 길이 三·八m 南邊의 길이 一·三五m를 連結하는 直三角形이 되고 깊이는 六〇cm가 되었다. 그리고 이 西邊 언덕(生土)壁 直下에서 自然石 四個가 一列을 이루어 一·七m의 길이로 發見되고 塹은 이 石列의 東쪽 五〇cm~七〇cm의 거리 區域에서 南北으로 놓여 있었고 그 깊이는 石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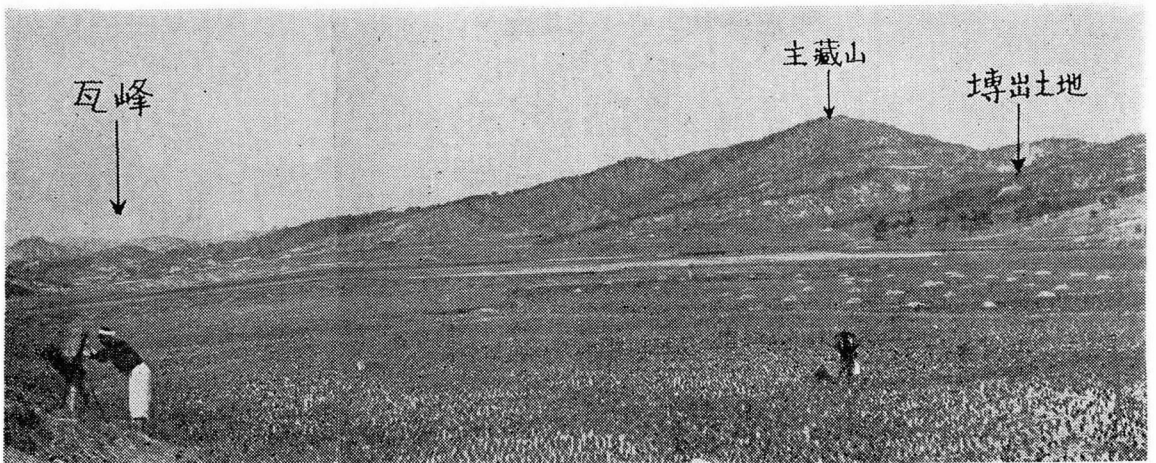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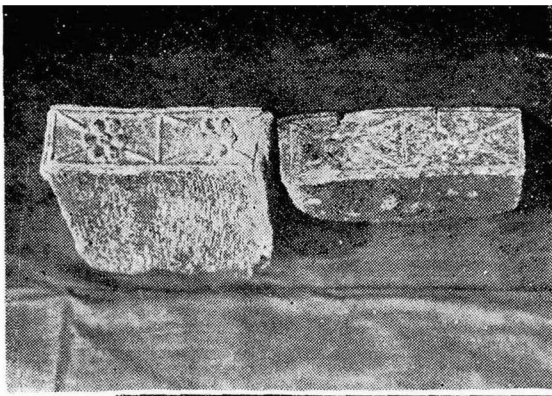


圖 2 : 塹出土地遠景



㉑



㉒

圖 3 : 蓮花紋磚

과 大略 같아서 耕作土表面에서 三〇cm 下 六〇cm 以內에서 無文磚 文樣 磚이 서로 混在 하었다고 하며 아마 一段 攪亂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이 磚들은 고운 粘土質의 腐土層속에서 있었으며 그밖의 土層은 黃色의 生土質였다고 한다. 이 三角形의 腐土層에서는 收拾된 一八個의 磚片外엔 아무런 痕跡도 發見할 수 없었으며 또한 附近에서도 다른 遺物 片이나 石材도 發見되지 않았다.

(2) 收拾된 磚片은 모두 一八個이나 完形은 하나도 없고 모두 서로 다 른 磚의 破片들이다. 이들을 文樣別로 分類하여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① 無文磚 三個(圖 4 參照)

cm이다. 胎土는 아주 곱고 모래가 약간 섞였다.

② 蓮華文磚(其一) 一個(圖 3a參照)

短側面에 二개의 蓮華文이 있고 黑青色이고 두께 四·二cm ~ 四·四cm 폭 一三cm ~ 一四cm 길이는 절단 되었다. 堅緻하며 胎土에는 炭片이 약 간 섞이고 全面에 自然釉가 덮였는데 아마 窯內에서 燒成時 소나무에 서 흠러 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表面에 자리문이 있다.

③ 蓮華文磚(其二) 二個(圖 3b參照)

黑灰色의 梯形이고 短側面에 半쪽의 蓮華文이 도톰하게 솟아 있고 이 것은 2쪽을 포개서 一個의 完成된 蓮華가 된다. 堅緻하며 針孔이 多數 있고 亦是 고운 모래가 약간 섞여 있다. 두께는 三·八cm ~ 四·三cm 이고 폭은 表가 一〇·七cm 裏가 一三cm며 길이는 절단 되었다.

④ 蓮華斜格文磚 四個

黑灰色의 長方形이나 약간 고르지 못하고 長側面 兩端에 蓮華文 各一 個씩 있고 中央에 斜格文이 있다. 胎土는 蓮華文(其一)와 같고 두께 三·四cm ~ 三·八cm 폭 一五·五cm ~ 一六cm 길이 三三cm며 表面에 자리문이 있다.

⑤ 大方銘文磚 三個

黑灰色의 長方形이고 長側面에 「大方」이란 二字가 길어로 있는데 字徑 二·四cm이다. 두께 四·五cm 폭 一五·八cm 길이는 절단되고 表面에 亦是 자리문이 있다.

⑥ 中方銘文磚 二個

黑褐色의 長方形으로 長側面에 「中方」二字를 길어로 새기고 있으며 字徑은 一·二cm이다. 두께 三·九cm ~ 四·五cm 폭과 길이는 절단되 고 全面에 自然釉가 덮혀 있다.

⑦ 其他 三個

이것들은 그 文樣을 알 수 없는 小形 破片들이다.

이와 같이 하여 長方形이 一六個 梯形 二個이다. 이 磚들을 公州의 宋 山里六號墳이나 朴山所⑦等 宋山里附近 出土品과 比較하여 보면 無文磚 은 床磚으로 墓의 바닥이나 棺臺에 使用하고 文樣磚은 壁磚으로 使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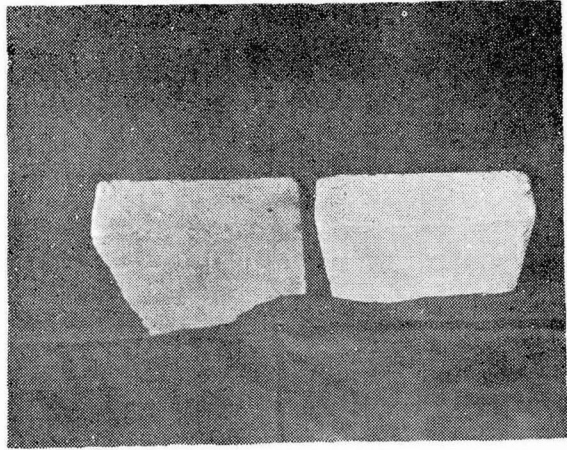


圖 4 : 無文磚

異點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宋山里磚은 어느 것을 莫論하고 釉藥이 全無한데 比하여 井洞里 것은 全面釉藥이 덮인 것이 있다.
- ② 燒成度에 있어서도 宋山里磚은 強度 높은 것이 있기는 하나 大部分은 낮고 보다 軟質이며 붉은 色(表面은 붉은 色이나 其外部分은 붉은 色)이 多數인데 比하여 井洞里 것은 全部 強度가 높고 갈라진 것이 많으며 더구나 붉은 色系는 全無하다.
- ③ 銘文의 字徑에 있어서도 宋山里 것은 三cm ~ 四cm 이나 井洞里 것은 二cm 內外로 보다 작다.
- ④ 胎土는 宋山里 磚은 아주 精選된 것이며 거의 無孔 無炭 無砂인데

고 있다. 銘文도 「大方」은 널리 使用된다는 뜻으로 壁의 下部에 많이 使用되고 있으며 「中方」은 中間에 쓰인다는 뜻으로 壁의 中間 部分에 實際로 使用하고 있다. 以外에도 「急使」 「使付」 등의 銘文磚이 있으나 이곳에서는 發見되지 않고 있다. 하여튼 이 銘文들은 磚의 用途를 表示한 것임에 틀림없다. 梯形 磚도 宋山里 六號墳에 依하면 Arch의 灣曲部分에 使用하였다.

(3) 이들을 宋山里 出土 磚과 比較하여 그 差

比하여 井洞里 것은 胎土 自體는 곱기는 하나 氣孔이 많고 작기는 하나 炭片이 多數 섞여 있고 모래도 많이 섞여 있다.

⑤ 磚의 크기와 蓮華文에서도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井洞里 出土 蓮華文(其二)를 보면 宋山里 出土 磚은 全體的으로 蓮華文이 크고 瓣이 길고 瓣端側을 灣曲시켜 그 端을 反轉시키고 있는데 井洞里 것은 瓣이 짧고 半圓形으로 되고 厚肉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文樣이 들어 있는 磚面도 宋山里 것보다 井洞里 것이 약간씩 크고 넓은데 比하여 施文面積은 오히려 좁아 들고 있다.

이상과 같은 差異點에서 井洞里 磚은 宋山里 磚과 形態나 樣式이 大端히 같으면서 그 製造한 時期 窯工人이 各各 다른 것임을 알 수 있고 用途도 달라서 宋山里 어느 墳墓의 殘餘分도 아닐 것이다.

4

다음은 이러한 磚을 出土한 遺蹟의 性格問題를 考究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多數의 磚을 出土하는 곳은 寺院址 窯址 古墳等인데 첫째 ① 出土址의 地形이 傾斜을 이루고 있고 狹小하여 建物이 들어 설만한 자리가 못되며 ② 또한 이러한 磚을 多數 出土하고 있는 公州地方에 있어서도 寺院址에서는 전혀 出土된 일이 없으므로 이곳이 寺院址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둘째로 窯址問題이다. ① 窯가 있으려면 窯(平窯는 登窯는 간에) 工房等이 차지 하여야 할 상당한 面積이 必要한데 出土地點은 前述한 마와 같이 傾斜진 狹小한 곳인데다가 各邊이 三·八m x 一·三五m의 자리만 빼놓고는 全部 生土層으로 過去에 施設物이 있었던 痕跡이 없다. ② 窯의 材料로써 絕對的으로 必要한 「흙」이 附近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附近 地域의 土質은 잔자갈이 많이 섞인 各박한 土質뿐이다. ③ 그리고 적어도 瓦를 빚어서 만들려면 多量의 「물」이 必要한데 附近에는 「물」이 있을 만한 곳이 전혀 없다. ④ 過去에 窯址였다면 불에 탄 붉은 흙들이 있는 것이 通例인데 이곳은 그러한 痕跡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瓦片이나 磚片이 전혀 發見되지 않는다. ⑤ 或者는 地圖에 表記된 山名이 「瓦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들어 瓦窯址가 아닌가 疑心을 하

